

축산물 완전 수입개방에 앞선 대응과제(I)



전 동 용
(대한양돈협회 회장)

차 례

● 서 론

1. 축산물 수입개방 배경과 쇠고기 통상마찰
2. 4·8 농축산물 수입개방조치와 보완대책
3. 돼지고기통조림 및 소시지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4. 5·28 육가공 원료돈육 수입허용조치

● 본 론

1. 돼지고기의 최근 국제생산, 소비, 무역동향과 전망
 - 가. 세계 돈육수출시장 전망
 - 나. 세계 돈육수입시장 전망
2. 양돈의 국제경쟁력 비교
 - 가. 비육돈생산비 국제비교
 - 나. 주요국의 양돈정책
 - 1) 덴마크 2) 대만
 - 다. 돼지고기 수출 원가분석
 - 라. 육가공원료육 수입가격 분석

● 결 론

1. 수입개방에 앞선 대응전략
 - 가. 양돈농민의 역할
 - 나. 입법, 행정부의 역할
 - 다. 소비자의 역할

〈서론〉

1. 축산물 수입개방 배경과 쇠고기 통상마찰

우리나라 대미흑자가 '85년 43억불에서 '86년 73억불, '87년 96억불, 그리고 '88년에는 '86억불로 증가된 반면, 미국은 '80년대 중반이후 계속되는 쌍둥이 적자로 '88년 1,551억불의 재정적자와 1,373억불의 무역적자가 발생하는 등 경제상태가 악화되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은 '86년 5월 야이터 미무역대표부 대표가 방한, 쇠고기 수입개방 요구를 하는 한편, '88년 8월에는 미국 신통상법 301조(슈퍼 301조)를 제정·시행함으로써 불공정 무역국에 대해서 보복조치를 의무화 했다.

'85년 이후 '88년 7월까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중단으로 미국육류업계는 미통상법 301조에 제소하였으며, '88년 5월에는 한·미, 한·호 쇠고기패널, 동년 9월에는 한·뉴 쇠고기 패널이 설치되었다. 이듬해인 '89년 11월엔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이사회가 우리나라의 쇠고기 수입제한에 관한 쇠고기문제 패널보고서를 채택함으로써 우리나라는 미

국, 호주, 뉴질랜드 등 쇠고기 시장 완전개방을 요구하는 나라들과 쌍무협상을 벌였다. 그 결과 '90년 3월에 한·미 쇠고기 협상, 그리고 동년 4월에는 한·호협상이 타결되어 쇠고기의 수입 개방 일정을 미국측에 명시하지 않는 대신, 수입쿼터량을 '89년도의 5만7천톤에서 '90년 5만 8천톤, '91년 6만2천톤, 그리고 '92년에는 6만6천톤으로 매년 4천톤씩 늘려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GATT BOP(국제수지)위원회는 '89년 10월 “국제수지를 이유로 수입규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GATT 18조 B항(BOP조항)적용 대상국에서 우리나라를 제외(줄임)시키기로 결의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92년부터 161개 품목의 농축산물을 비롯, 279개의 현행 수입제한 품목을 '97년 7월 1일까지 단계적으로 완전자유화하게 되었다.

2. 4·8 농축산물 수입개방조치와 보완대책

농림수산부장관은 '89년 4월 8일 '89~'91년 중 수입자유화 예시계획을 발표함으로써 그동안 수입을 유보해 왔던 643개 농축산물 가운데 돼지의 냉동간장을 포함한 82개 품목이 '89년도에, 소시지를 포함한 76개 품목이 '90년도에 각각 개방되었으며, 돼지고기 식용설육을 포함한 85개 품목은 '91년도에 개방될 예정이다.

이로써 우리나라의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율은 '83년 62%에서 '85년 66.2%, '88년 71.9%, 그리고 '89년 76.1%, '90년 80.3%로 급증했으며, '91년에 가서는 84.9%에 달할 전망이다. 더 우기 농축산물 자유화율은 이보다 더 높아 '90년에 82.8%, '91년엔 86.2%에 달할 전망이다. '88년말 일본의 농림수산물 수입자유화율이 89.3%임을 비추어 볼때, 우리나라는 일시에 압축

〈표1〉 연도별 자유화 예시

구 분	총품목수	검토대상 품 목 수	자유화예시품목수				유보
			'89	'90	'91	계	
농림수산물	1,785	643	82	76	85	243	400
-농축산물	1,162	420	55	42	41	138	282
-임 산 물	295	16	1	2	7	10	6
-수 산 물	328	207	26	32	37	95	112
미국관심품목		119	22	19	21	62	57

자료 : 1989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 농림수산부

개방을 함으로써 잃든 좋은간에 해당품목을 생산하는 농민들의 희생이 불가피 해졌다.

농림수산부의 “'89년도 농업동향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수입자유화 예시계획 추진배경을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우리나라는 무역 규모면에서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하여 국제무대에서의 우리 경제의 비중이 증대되고 있음에 따라 거의 모든 공산품은 수입이 자유화 되었으나(99.5%), 농수산물만은 우리 농어업 구조의 취약성과 농어촌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최대한 수입개방을 억제해 옴으로써 수입자유화율은 '88년말 72% 수준으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하여 왔다. 이에 대해 세계 무역환경의 추세는 GATT 우루과이 라운드협상(다자간 협상)을 통해 전반적인 농수산물 수입자유화 협의를 계속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대하여 '88년 86억불에 달하는 무역적자를 낸 미국을 중심으로 우리 농수산물의 수입개방 확대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경제의 1/3이상을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경제성장을 지속해 나가기 위해서 해외시장의 효과적 관리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되고 있으며, 농수산물 수입개방 요구를 외면할 수 만은 없는 실정에 있다.”

세계 무역환경의 변화추세로 농축산물 수입

66

'80년대 후반들어서 연간 수천톤의 대일 돼지고기수출이 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나라 양돈이 대만, 덴마크 양돈처럼 국제경쟁력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생산과잉으로 돈가가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처치곤란 하여 밀지고 처분된 것이다.

99



〈표2〉 수입자유화율 변화추이

구 분	'88.12	'89	'90	'91
농 립 수 산 물	71.9%	76.1	80.3	84.9
-농축산물	75.1	79.3	82.8	86.2
-임 산 물	94.6	94.9	95.3	97.3
-수 산 물	40.2	48.2	57.9	69.2

자료 : 상량서

개방이 불가피 하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이로 인해 축산이 후퇴, 소멸되어 농민층 분해가 가속화 되고 농민의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왜냐하면 농축산물을 포함한 식량은 하루라도 거르면 안되는 국민식생활의 필수품이기 때문에 식량자급에 의한 안정공급이 국민생활을 지탱해 주는 제1조건이며, 또한 수입개방으로 인한 수입식품의 안전성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입자유화의 타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4·18 수입개방조치에 따른 정부의 보완대책

은 첫째, 직접피해가 발생할 때는 이를 보상하고 둘째, 수입자유화 대상작물을 재배하는 농어민이 작목을 바꿀 때는 자금과 기술을 지원하며 셋째, 수출전망이 있는 품목을 집중지원 육성하는 한편, 생산성 향상을 위한 구조조정을 촉진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통한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비교적 경쟁력이 있는 양돈, 양계, 사과, 배, 화훼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양돈, 양계의 경우 고작 사육시설의 자동화 자금 지원을 통해 수입자유화에 대한 구조조정을 지원한다는 것이 보완대책의 전부이다.

'80년대 후반들어서 연간 수천톤의 대일 돼지고기수출이 되고 있으나, 이것은 우리나라 양돈이 대만, 덴마크 양돈처럼 국제경쟁력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오히려 생산과잉으로 돈가가 생산비 이하로 떨어져 처치곤란 하여 밀지고 처분된 것이다. 이러한 출혈수출을 두고 마치 양돈이 국제경쟁력이 있는 것처럼 잘못 이해되고,

또 이러한 바탕위에서 안이하게 양돈시설 자동화에 국한된 보완대책이 수립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3. 돼지고기통조림 및 소시지 수입과 국내산업 피해

'87년 7월 수입자유화된 돼지고기통조림의 경우 '87년 하반기의 수입량은 566톤에 불과했으나, '88년에는 전년보다 무려 193% 증가한 1,660톤, '89년에는 전년보다 59% 늘어난 2,637톤이 국산품의 절반값으로 덴마크, 미국 등지에서 수입됨으로써 국내 육가공산업의 생산실적과 가동율을 저하시키고 판매량 및 시장점유율을 감소시켜 적자를 안겨 주었다.

이로 인해 국산 육가공원료육 사업량이 줄어드는 등 돼지고기 공급에 대한 완충역할이 불균형 상태에 빠져 쇠고기 대량수입, 저가방출과 겹쳐 양돈농가는 '88~'89년도에 공급과잉으로 인한 돈가하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으며, 이로 인해 '88년에는 4만2천여 양돈농가가, 그리고 '89년에는 4만3천여 양돈농가가, 그리고 '90년 1/4분기에는 3만3천여 양돈농가가 빚더미에 나앉은채 생업인 양돈업을 포기하고 말았다.

이러한 농민층 분해는 결국 이농현상을 가져와, 연간 50만명이 도시로 빠져나가(push out) 도시빈민층으로 전락하는 악순환을 초래하고 있다. 그러나 돼지고기통조림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구제조치는 현행 30%인 수입관세를 '91년 말까지 50%의 긴급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국한되었다. 이러한 조치로는 국내산업 피해구제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보다 강력한 수입제한 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금년들어 개방된 소시지 역시 국산품의

절반 값으로 수입판매되고 있어, '89년 국산 돈육가공품 생산량의 49%(2만499톤)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전년보다 생산량이 59%나 신장하고 있는 국내 소시지 시장에 큰 타격을 주어 농민층 분해를 가속화 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4. 5·28 육가공 원료돈육 수입조치

최근 정부는 국내 돼지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어 돼지고기 수출량이 격감되고, 육가공제품의 수요는 크게 신장하고 있으나, 원료육의 부족과 가격상승으로 육가공품 생산에 어려움이 있자, 돼지고기의 지속적인 수출추진과 육가공원료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돼지고기 수출업체로 하여금 육가공원료육 돼지고기를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수입허용하였다.

'88년 하반기와 '89년도의 돈가폭락으로 양돈농민들은 생산비도 못 건진채 빚더미 위에 올라 앉았으며, '88년부터 '90년 1/4분기까지 2년 3개월동안 12만 양돈농가가 도산된 희생의 결과, 금년 4월부터 돼지고기 공급부족으로 돈가가 일시적, 비정상적으로 등귀하고 있을 뿐이며, 이러한 상태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돼지의 다산성과 피크싸이클 속성으로 보아 그리 오래 갈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육가공업의 수익성 저하를 원료문제에 귀착시켜 원료를 해외에 의존하려는 독점식육가공자본(재벌기업)에게 육가공원료육 돼지고기를 수입허용한 것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돈육공급체제를 변질시킬 뿐만 아니라, 국내 양돈업 발전과 연계되지 않은 채 기형적인 육가공업의 발전만을 가져와 결국 돈육가공품의 독점가격 결정권을 갖고 유통과정을 지배하고 있는 독점식육가공자본만 유리하게 될 뿐이다.<다음호에 계속>